

지역 소식통

부안군, 국가암검진 홍보

고창군 보건소가 올해 국가암 및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부안고창지사과 연계해 개별적으로 우편안내, 전화, 문자 서비스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터미널 등에 전광판, 플래카드 게시 등으로 주민들의 암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분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검사만을 받을 경우 대장암검진 수검인정을 받지 못해 추후 대장암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비지원을 받지 못함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올해 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남자는 40세 이상, 여자는 20세 이상이다. 이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이하인 자는 무료 암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검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국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고창군 검진지정병원인 6개소(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 이진홍내과, 임국희내과, 정내과, 해리현대의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잇단 온정의 손길

정읍시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다.

내장산물 운영위원회(위원장 문석준)는 11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문석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내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힘을 보태게 됐다"고 말했다.

내장산물 운영위원회는 성금 기탁과 함께 지역 내 택시에 대한 방역 소독을 펼치며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단풍미인한우홍보관(대표 유종대)도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코로나 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유종대 대표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힘들어하는 주민이 많은 상황에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죽산마을' 이름 되찾는다

일제강점기 잔재 '주산마을' 청산, 옛 이름 복원 '동학정신' 바로세우기 일환... 주민총회 만장일치



정읍시는 일제 잔재 청산과 지역의 역사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면 신촌리 주산마을을 '죽산(竹山)마을'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의 주산마을은 1872년 작성된 조선 후기 고부지역 지방지도에도 죽산(竹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동학농민혁명의 시발 지역인 죽산마을의 정기를 말살시키고자 배척당 때 돌아다니라는 뜻의 주산(舟山)으로 개명해 오늘까지 주산이라 불리고 있다.

이에 시는 죽산마을의 이름을 되찾고자 지난 1일 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9일 주민총회에서 주민 찬반 의견조사 등을 거친 결과 '죽산(竹山)마을'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시는 마을로부터 명칭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해 고유한 행정지명 복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답게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이다.

시는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

공원 ▲말목장터 ▲만석보터 ▲죽산마을 ▲전봉준장군고택 등을 권역으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죽산마을의 명칭 변경은 권역화 사업의 첫걸음"이라며 "명칭 변경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개발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전국화·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죽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을 준비하고 실행을 도모한 사발통문이 작성된 곳이다.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봉건사회의 모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자 송두호의 집에서 거사계획을 세우고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켰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시외·고속버스 감축 버스 운수업체 경영 손실 줄여

고창군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시외·고속버스를 감축 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버스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이동 자제로 기존 대비 70%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16회 운행되던 서울 센트럴시티행 버스는 운수업체의 감축 운행 요청을 군이 받아들여 지난 10일부터 5회(09:20, 10:50, 13:10, 15:30, 18:00) 감축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11회 운행된다. 이외에도 광주행 버스가 기존 26회에서 3회 감축되어 23회 운행될 예정이며, 인천행 버스는 기존 2회 운행되던 노선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전면 운행 중단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급감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코로나19 종료 시기까지 버스 운행을 감축하게 됐다"며 "운수회사 측과 수시로 소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현안 해법찾기 '발빠른 행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곰소염전 스마트복합센터 등 논의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익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김규현 청장을 면담하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적의 도로선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공모사업인 곰소염전 스마트복합센터, 부창대교 건설 등 지역 현안사

안이 원활히 추진돼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규현 청장은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는 기술 및 예산적인 문제와 주민 및 부안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고 부창대교는 부안군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부안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의 성공

개최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협할 것을 약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사업 발굴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도 23호선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부창대교의 조기 건설 및 부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유대관계 및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발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익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김규현 청장을 면담하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정읍시,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45억원 들여 22개 노선 13.9km

정읍시가 올해 45억원을 들여 군·농어촌도로 22개 노선 13.9km를 확·포장한다.

시는 군도 6개 노선 6.7km, 농어촌도로 16개 노선 7.2km를 확·포장에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관청~주산선(군도 4호) ▲승부~반곡선(군도 8호) ▲상산~선동선(군도 12호)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

다.

신규사업지구인 ▲후지~풍원선(군도 3호) ▲기린~화룡선(군도 4호) ▲주산~강고선(군도 4호)는 도로구역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어촌도로도 확·포장사업으로 ▲만수선(고부206호) ▲덕수선(고부309호) ▲용흥선(고부311호) ▲원자선(산내101호) ▲잠매선(산내102호) ▲두에선(산내103호) ▲사적선(산내206호) ▲영삼선(용동203호) ▲제내선(용동204호) ▲장산선(정우206호)

▲은원선(칠보202호) ▲한화선(북면201호) ▲구계선(감곡103호) ▲동지선(산외202호) ▲아주선(산외201호) ▲진구선(산외207호)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도 1호선 전주 방향에서 제2청사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할 방침으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보상과 공사에 착수한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정부보급종자 523톤 공급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종자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산 정부보급종자 벼와 콩 등 523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급종 벼는 신동진 등 9품종으로 457톤, 콩은 장류공인 선종 등 5품종 25톤, 감자는 수미 40톤, 옥수수는 미백 등 3품종으로 344kg이다.

벼 보급종은 총 45만7,840kg으로 신동진 38만6,780 동진할 4만8,620 해당 6,040 조평 2,920 해품 2,960 새누리 3,700 새일미 5,320 운광 1,000 미품 500kg 이며 이는 부안군 전체 벼 종자

소요량의 63.2%에 해당된다.

콩 보급종은 총 25,120kg으로 선종 2만3,000 대한 1,300 대원 400 풍산나물 300 아라리 120kg 이며, 감자 보급종은 총 3만9,860kg으로 수미 품종을 춘·추기로 나누어 공급하고, 옥수수를 보급종은 총 344kg으로 미백 128 흑점 2호 120 미흑할 96kg이다.

보급종은 정부기관이 품질을 보증하는 우량종자로 기존 재배종자를 우량종자로 바꾸어 재배하면 벼는 6%, 콩은 10%, 옥수수는 65% 정도 증수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